

영등포시장역 5분, 여의도 두 정거장... 주변 시세 밀돌아

부동산 현장 르포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분양가 3.3㎡당 평균 4800만원
강화된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일반공급 물량 중 60% 추첨제
청년·신혼 실수요자 청약 기회

서울 영등포 뉴타운 사업으로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걸어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까지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고, 강남까지도 30분 내로 가능하다. 올해 분양 물량이 희소한 서울 중심지에서 선보이는 단지인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예비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84㎡,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와 84㎡ 거실 유닛.



/안상미 기자

17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7세대 ▲76㎡ 41세대 ▲84㎡A 13세대 ▲84㎡C 87세대 ▲84㎡D 17세대 등이다. 견본주택에는 물량이 가장 많은 84㎡ 타입의 유닛이 마련되어 있었다. 입주는 오는 202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전체 4000여 세대로 조성되는 영등포 뉴타운 사업으로 보면 1-13구역인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중심부에 위치했다. 1-4구역인 '아크로타워스퀘어'가 2017년, 1-3구역인 포레나영등포센터

이 2020년에 입주를 마쳤으며, 1-2구역과 1-11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상태다. 1-12와 1-14, 1-18구역이 통합재개발로 조합설립인가를 바워 진행 중이다.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변이 노후화됐지만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정비된 주거지로 완전히 탈바꿈이 될 것"이라며 "아직 입주까지 시간이 충분한만큼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청약을 해도 좋을 단지"라고 말했다.

단지는 영종초에 도보 통학할 수 있으며, 서부권 사교육 중심지인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영등포시장을 비롯해 타임스퀘어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4800만원으로 주변 시세를 밀돈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 12억7080만원, 76㎡ 15억3930만원, 84㎡ 16억9740만원이다.

현재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타워스퀘어의 경우 올해 전용 59㎡이 14억97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고, 84㎡는 지난달 18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매물

시세는 19억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세대 내부는 타입에 따라 맞춤형 구조나 7자 주방 설계,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를 선보였다.

견본주택에 마련된 전용 84㎡ 유닛의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 특화 설계를 선택할 수 있다. 현관을 각각 만들어 수직형 임대도 가능하다.

시각상 강화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 규제 등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SR 3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난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제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은 다음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이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 중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이 없고,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솔페이 디스커버' 개편 콘텐츠·이벤트 강화

신한카드는 '신한 솔페이 디스커버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사용자 경험을 반영해 인공지능(AI)이 고객별 이용 행태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선별한다. 특히 생활 영역 콘텐츠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새단장 기념 선착순 판매 행사를 준비했다. 매일업의 단백질 음료 셀렉스와 배상면주가 패키지 상품을 특가에 제공한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블루보틀 머그컵을 배송비만 받고 판매한다. 이 밖에도 오는 내달 1~20일까지 출석체크 및 미션 수행 스페셜 포인트를 준다.

KB국민카드

여름휴가 지원금 행사 최대 500달러 지급

KB국민카드는 '여름휴가 준비도 KB페이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을 최대 500달러 지급한다. 행사 기간 내 응모 및 푸시 알림에 동의하면 된다.

KB페이에 신규로 가입하면 추첨 기회 3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어 KB페이로 결제하면 추첨 기회 2회를 더 얻을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 도시 500여곳에서 여행 짐배출 및 보관 서비스 할인권도 준비했다. 내달 27일까지 '해외여행 갈 땐 강력 짐배출! KB페이로 최대 1만원 할인' 행사를 총 5000명에게 제공한다.

/김정산기자 kimsan119@

2050세대 27% 가상자산 보유... 계획적 투자 증가

단기 수익보다 미래가치 기대 기존은행계좌 연동 불가 '불편'

우리나라 2050세대 중 27%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초반과 달리 유행을 좇아 가상자산에 투자하기보다 미래 통화로서의 가치상승 등을 기대하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약 970만명으로 전 국민의 20%에 달했다. 주식투

자의 77%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지난 2023년 말 55조원에서 2024년 108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유행을 좇으며 단기 수익에 치중하던 것에서 가상자산의 발전을 기대하며 투자포트폴리오에 해당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늘었다.

가상자산에 투자를 시작한 이유로 주변 영향과 유행을 좇는 심리가 감소(57→34%)한 반면 새로운 투자 경험(26→44%), 성장 가능성,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이 증가했다.

투자 방식도 가상자산 출현 초기에는 수익률에 따라 수시로 매매한다(36%)는 것과 며칠 또는 몇 주 간격으로

거래한다(33%)는 응답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모은다(34%), 몇 개월 간격으로 거래한다(47%)는 응답이 늘어 계획적 투자가 증가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존 은행계좌와 거래소 간 연동이 불가한 점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1거래소 1은행 지정 제약이 완화될 경우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우대 혜택을 주는 신규은행보다 주거래 은행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43%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다. 투자 의향이 높은 이들은 미래통화로서의 가치상승, 기술 혁신 기대를 더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 우려(56%)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투자 의향이 낮은 이들은 거래소 리스크(61%)나 사기 위험(61%)을 더 크게 인지했다. 전통 금융사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선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더욱 대중화될 전망"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확대는 은행에게 기회일 수도 또는 위기일 수도 있고,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다양화, 통합적인 투자 관리의 고도화,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업 등 투자 생태계 확장에 대비할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국인 3명 중 1명 반려인... 보험시장 잠재력 주목

반려가구 591만... 생애 지출 급증 보험가입 저조, 진료비표준화 절실

한국인 3명 중 한 명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9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했다. 반려견과 반려묘 가구가 각각 455만, 137만 가구로 집계됐다. 반려인은 1546만 명으로 총인구의 29.9%를 차지했다.

KB금융이 2017년 이후 올해 다섯 번째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 반려

동물 및 반려가구 현황과 양육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일반 가구 2000명과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정량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심층면접(정성조사, 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포함하는 수도권 반려가구가 305만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7%가 살고 있다.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입양비는 평균 38만원으로 2023년보다 10만원이 올랐다.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도 전년 대비 4만원

이 늘어난 19만4000원을 지출했다. 반려견 가구는 '식비'가 10.1%포인트(p), 반려묘 가구는 '가구·유모차구매/대여료'가 6.9%p 늘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2만8000원을 써 2023년보다 2배나 급증했다. 장례비로는 46만3000원을 지출했고, '직접매장'이 절반으로 줄면서 2023년보다 8만3000원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늘었지만 별도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반려가구는 26.6%에 그쳤다. 반려가구의 91.7%가 반려동물보험을 알고 있었지만 가입률은 12.8%로 낮았다. 반려동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

한 개선 과제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46.1%)을 꼽았다.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인식 차가 컸다. 반려가구는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양육만족도는 76%로 2023년 대비 8.7%p 상승했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할 의향(74.2%)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49.4%) 역시 과거 대비 확대됐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